성도의벽 12 1994
별책 부록: 어린이란
일반
대관절단 성탄절 메시지 ................................................................. 1
대관절단 메시지 : 항상 선행 일을 함
고드 비 허프리 부대관장 ......................................................... 2
45년 동안의 십일조 계정 베논알קהל ......................................... 8
항가리 국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제프리 에스 맥גר리 .................. 16
밀들레에게서 얻은 응답 일리 프리츠 레이어스 .............................. 32
올문경에 나타나 있는 크리스마스 .............................................. 34
미크로네시아에 새로운 향로를 만들 알릴 존슨 ......................... 40

청소년란
 Champ 신자 날에이 메스월 장로 .............................................. 10
왜 날 꺼워지지 않았죠? 존 에이치 그로버 장로 ............................... 22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반다 페레이라 드 안드레데 .......... 26
나는 그가 예언자란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파 알 감로요 ........................................................................ 30

정기 특별 기사
방문 교육 메시지 : 영적인 확신 ............................................. 25

어린 이란(별책 부록)
성탄절 메시지 대관절단 ............................................................. 2
노래 : 성탄 축하 페트리시 템시 그라이엄 ................................... 4
성탄절 공예 .............................................................................. 6
함께 나누는 시간 : "주 예수를 닮으려고" 주디 에드워드 .................... 7
이야기 : 사라 모즐리의 뒤늦은 크리스마스 선물 레이 골드럼 .......... 10
친구 사귀기 :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사는 키릴 키릴루크과
타나 홀로소 로데레리 지 퍼어 ............................................. 13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성탄절은 바쁜 설기입니다. 거리와 상점은 머지막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교제 도료와는 차림들이 늘어나고, 공항도 사람들로 북해한다. 모든 기독교계는 음아과 조명과 축제의 장식으로 활기를 터지 시작하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 트리, 빛이 날아, 거울살이 장식, 선물을 주는 것이다 모두 성탄절을 촉촉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슴니다. 그것은 구세주의 삶과 사명, 그분이 가르친 사명, 또 우리를 위해 대신하신 그분의 희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곳, 어느 시대에 살든지,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그분은 들어오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자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화평을 주시면서, 수도 화평한 자기를 설 수 있도록 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참된 정신을 이해하고 그 달콤함에 취하려 한다면, 이 점에 대한 솔직한 온라인 분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십시오.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장소에서, 마음을 휘감고, 혼자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받은 풍요한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 entrenched한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할 때, 그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간직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친가 올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구약적으로는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실 것이오 모든 헤가”(로마 14:11) 은율람이 잔혹하리라 낳고, 전쟁이 무력에서 대가하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기원한 한 연제든지, 우리는 더욱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기쁨을 유일하고 천년의 근본이며,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화평은 그분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지하신 주님께 "우리의 철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겠으며, 우리의 힘으로 인하여 헤를 당하셨고, 우리의 헤를 인하여 상하였다는 것을 간증드릴 것입니다. 이사야 53:4-5 참조)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야이심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사와 아프리와 자녀들은 오랫동안 그분의 경배를 기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 계신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닿으셨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시며, 세상의 빌미요, 생명이십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The SONGDOU POTISSN 1944-3449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3.00 a year. Single copy $1.00 per single copy. Notice of change of address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5-28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 POTISSN 1944-3449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항상 선한 일을 함

고든 비 헨сло리 부대장관
대관장단 제1보좌

사

함들들에게는 각자 성탄절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 다. 우리는 모두 표범으로 예쁘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부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성탄절을 즐겁게 보냅니다. 그때 먹은 맛있는 음식은 다음 성탄절이 될 때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성탄절이 되면 온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이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의해 단순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가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하며, 그 이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구세주 탄생의 기쁨과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 위해 성탄절기에 함께 모이는 부모와 저녁들에게는 가족이 아기에 관한 이야기를 따뜻하고 따뜻하게 말씀을 주어 온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찰스 디킨스는 또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1849년에 그는 테이비드 코파필드를 집필하면서 종종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상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출판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그 작품을 출판하지 못하다가 전진했습니다. 그 작품은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를 틀어주는 소박한 건강성이었습니다. 그 자녀들 역시 성경에서도 그 작품이 출판된 것을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그 작품은 85년 동안 오직 그 가족만의 것으로 간직되었습니다. 마침내 찰스 디킨스의 막내 아들인 이 1933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 세대가 모두 죽고 나자, 디킨스의 후손들은 마침내 그 작품을 출판하기로 결정을 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34년에 저는 연인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대해 신문에 연재되어 많은 전용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그곳에 큰 관심을 가졌고, 그 작품은 연재될 때마다 연재의 습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나, 점차 그 관심도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할리와 저마는 그 책을 구입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웃지 못한 것들도 많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는 희망이 있는 언어로 쓰여진 웃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찰은 죽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그 즐거운 구절을 나누는 일가가 있습니다. 디킨스가 쓴 그대도를 가깝지 않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갈망하며 바란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어야 하기 때문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그분만큼 착하고 친절하고 온유하시며, 잘못을 저질리거나 또는 아프거나 슬픔에 떨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듯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제 그분은 천국에 계시며, 우리로 무한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곳으로 가서 그 곳에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갈망하고 있으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분은 저의 이처 묵인 이주 며 옛날에 베플례험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다. 그분의 부모님들은 사나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베플례행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분의 부친은 요셉이었고 모친은 마리아였는데, 베플례행에는 그들과 같은 목적으로 오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눈이나 절에 머물 방을 찾는 것이 너무도 많았다. 그 상태로 두 사람은 마나간에 머물게 되었으나, 바로 이 마나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가, 그 곳에는 아이를 둔 요셉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이 막히고 덜은 그릇이 구해야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자 아이가 구해야 합이 들었다.

“아기가 잡을 가지고 있는 동안 목자가들 일어서 양치는 데, 하나님이 보내신 밤 밤마다 천사들이 일어서 서 있는 장면에서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처음에 목가들은 무서워서 얼굴을 둘어 대고서 놀라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 천사는 ‘오늘 이곳 가까운 마을인 베플례행에서 한 아기가 탄생하셨는데, 그 아이는 자면서 나무 잘게 되어 아니나리께서 그분을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위거나 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듯 그분의 이름을 포함시키며, 또한 자신들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듯 그분의 이름을 포함시키며, 또한 자신들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 천사는 목지들에게 마나간으로 가서 구유에 누우시니 아이기록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지들은 그 말씀에 따라 천사가 알러준 곳으로 가서 잠이 들고 있다가 이 아기를 쏟아쓰는 했다고 말했다.

“오늘날 렌턴이 영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것처럼, 당시에는 그 나라에서 예수살렘은 가장 큰 도시였다. 그 예수살렘에는 해뜰이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목자가 서로 말하다 이재 배둘레함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벌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요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누가복음 2:15~16)

날 멍 동방에서 박사들은 찾아 왔고, 왕에게 “ 저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별은 배둘레함에서 태어나게 될 아기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 아기는 경지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죠. 사악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절투심이 생겨서, 자신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숨긴 채 박사들에게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별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지금은 이곳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그들에게 만일 그 별이 아기가 태어난 곳을 보여 주어 아기를 찾아서 귀하는 둘아와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밤으로 나왔으며, 별은 그들 보다 약간 앞선 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더니, 마침내 아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렀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도록 명하신 것이란.

“별이 멀추자, 박사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았자, 박사들은 아기를 무척 사랑했으며, 아기에 선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갔는데, 헤롯 왕에게는 가지 않았다. 그들은 헤롯 왕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절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자, 그래서 박사들은 밤중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주님의 일생, 린던 : 연합 신문, 1934년 : 재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11~17쪽)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디킨스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그분의 부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친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육신의 독생자를 사랑할 것입니다.
디킨스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칭했습니다. �akin스는 주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에 관해 기록한 다음, 다음과 같은 말로 맺은 작품을 마社会科学의 정신이다.

“명심하라! 우리에게 악한 것을 하는 사람에게 조차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악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용서하고, 자비롭고, 용서하며, 이 모든 것을 드러나지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간직하며, 결코 뿔내어 기도하거나 하늘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다만 대화에 은을 일으키고 노력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일 이란다. 이것을 기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성사를 용서하시고, 화 평 가운데서 살다가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실 것 이라는 걸 그분께 확실히 바칠 것을 기원하기.”(같은 책, 124-125쪽)

우리는 모두 �akin스의 블록회의 명작인 크리스마스 캐
럴을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구두의 부자 영감
인 에베네제스 크루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크루지지는
자신의 직원인 보르 크라치트에게 매우 인식하고 매청
하게 대합니다. 그러던 중 성탄절 전날 밤에, 크루지
의 동업자들이 죽은 채로 발견되어, 사과와 선물과 함께
의 미례의 성탄절에 관한 시험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크라치트의 경험으로 크루지지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루지지는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고는 두려워 기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크라
치트가 죽을 때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삶을
완벽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잃지 않아
내 줄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기이한 이야기이며, 무관심한
것들을 깊이로 바꿔
고, 마음이 사로잡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서를 자는 꼬마 아이인 다이나 팀이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촉촉하게” 한 소리로 외치는 감미로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을 다룬 �akin스의
대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생은
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집필되었으며, 구름이나 성상
의 비약 없이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심하라! 우리에게 악한
것을 하는 사람에게 조차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
리스도인의 정신이다.”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디킨스는 이처럼 단순한 언어로 우리에게 매지를
전해 줍니다. 그가 살아 있을 당시는 물론, 그 후 수세
대 동안 수백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읽
겨 왔었습니다. 그러나 �akin스의 자필로 쓰여졌으며 편
집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수정을 가하지 않은 작품인 때
수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는 85년 동안 그의 가족들
이 보유한 비밀스러운 감각이었으며, 그 후 원작을 교
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편집하여 인쇄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이 작품은 그의 가족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즐
길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이 세상에 사셨던 가장 위대한 분의
탄생과 삶과 죽음을 간직하는 수많은 글들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위대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의 아들
이시며, 세상의 구세주, 구속주이신이고, 평강의 왕이며,
기록하신 주님입니다.

이사야는 이 위대한 분에 관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
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
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에에는 정사를 떼셨고
그 이름은 기리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
주하시라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
야 9:6)

침례 요한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나리 나는 그 신들에게
줄기도 감당치 못하였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누가복음 3:16)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주시라”(요한
복음 21:7) 하고 소리쳤습니다.

천사의 그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갈
떨어 사람들이 어저서서 저를 만치가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들어 온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을 본
그대로 오시라”(사도행전 1:11)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든 역시 그분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또 이 아침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に入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듣는 이른
양에 대한 간증은 이리하니, 곧 저는 살아게 되어 함이
나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국민이 있는 것을 보였고, 또
저는 아버지의 특별자로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발명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
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람들의 병을 치푸 주셨으며, 우리에게 희망의 신을 행하려고 가르쳐셨다. 그분의 은사인 속죄의 희생과 부활로 알게된 이 인류를 위해 불사 불멸과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셨습니다.

이 아름답고 축복된 절기에 우리 모두 예수님 그리스도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대로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기 바랄니 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성탄절기에 흔치 않는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2.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계명이다.

3. 우리가 성탄절기에 정신에서 쉴 수 있는 아기 예수는 살아 계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세주시고, 예수님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분이시며, 오늘날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코스모바기아 프라하 선교부의 라자드 윈디 선교부장께서 내게 주신 "몰론 선교부 귀하"라는 만 적힌 편지를 건네 받았을 때, 나는 그 봉투 위에 제코의 작은 도시인 체스카 트레보바 주 체코의 소인이 적혀 있음을 보았다. 그 곳은 지난 1948년 내가 젊었을 적에 선교사로 봉사한 지역이었다. 이제 그로부터 45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다시 코스모바기아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이변에는 아내와 함께 보혜미아에 있다.

체스카 트레보바라는 지명을 보고 나는 당시 그 마을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던 투카소바 자매를 머물리게 되었다. 1948년,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어 졌을 것을 요청했다. 나의 동반자와 나는 체스카 트레보바에서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투카소바 자매는 우리가 몇몇 신부님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절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임 중에 하나를 방문하고, 우리를 심하게 다루었을 때, 선교부장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프라하로 돌아오도록 했다. 그 후 투카소바 자매의 교회와의 접촉은 단절되었다.

"투카소바 자매님은 지금쯤은 돌아가셨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나는 봉투를 열어 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다음과 같이 쓰인 편지를 읽었다.

"저의 속모님은 1930년 이래로 뿌리 교회의 회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87세로 건강이 좋지 못하십니다. 속모님은 1948년에 이곳에서 두 명의 선교사, 즉 글라우세 장로님과 형 장로님이 봉사했던 이후로 뿌리 교회와의 접촉이 끊겼습니다. 속모님에게 뿌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내 주실 수 있을지는요? 뿌리께서 그것에 대해 많은 감사를 하실 것임.

내가 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원터 선교부장은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편지가 장로님에게 특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명의 젊은 장로들이 체스카 트레보바까지 함께 동행했다. 밝은 애니프런을 입은 투카소바 자매는 수수한 그녀의 절에서, 나이 들어 점점으로 조용한 모습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새가 빛고, 그녀의 눈은 명랑하고 천천히 이해심으로 빛났다.
우리는 서로 겪었으며 인사를 한 다음, 서로의 생각과 지난 기억들을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루카소바 자매는 지금까지도 45년 전의 나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조카 뒤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조카 뒤에 작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녀는 그것을 나에게 건네 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 책이 예금 통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저의 신임조입니다."라고 루카소바 자매는 말했다.

그것을 잡고 넘겨보면서, 나는 매월 부였던 적립금이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 예금 제도는 방과 외로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의 50년 동안 충실하게 순종해 왔음을 보여 주었다. 오직 간증과 영으로서, 루카소바 자매는 성일조를 바칠 것을 약속한 자신의 절대 성약을 지켜왔던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성찬식을 가졌으며, 그녀의 강한 간증을 듣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곧 돌아왔다. 최근에 루카소바 자매는 독일 프라이바이어크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녀는 지금도 영원히 자신의 생을 축복해 줄 보화를 얻고 있다. □

이미지: 1993년 루카소바 자매와 베른 엘 Commonwealth 휴식과 자매가 간직해 온 젊은 선교사로 놓사하던 때의 한 형제의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추억이 잡겼다. 아래: 더 이상 교회 회원들로부터 고립되지 않은 루카소바 자매는 일일의 체크 성도들과 함께 1994년 독일 프라이바이어크 성전에 참석했다. (루카소바 자매는 오른쪽에서 둘째번에 앉아 있음.)
참된 신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신자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구세주와 이것, 그리고 동료들에게 보여 주는 사랑으로 인해 누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참된 신자는 그들의 안목이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악잡이 있지만, 그들의 많은 자원의 중심을 구세주에 두고 있어, 그들은 모든 사물을 그러한 광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합니다. 대체로 이 의무는 중요한 비 교적 수월한 것들입니다. 합당하게 성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다는 분사를 하며,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 하고 금식하며, 의식을 받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해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내고, 선교 사업과 가족 역 사 사업을 행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성전에 가지 위해 준비하는 것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이른 의무에 포함됩니다.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기본적인 재명들을 지킴에 있어 이러한 일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겸손합니다. 그들은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 있다”며 이 지성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었던 모세와 같이 “전에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모로나 이서 7:44: 모세서 1:7~11: 민 수기 12:3 참조) 그들은 쉽게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 화원으로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갖는 일상적인 책임에서 “벗이나”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예전에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하였다”하여 그러한 책임을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국의 일상적인 일들을 회피한다면 아직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기쁘게 행사합니다. 한 청년이 구세주를 찾아와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구체적인 목표, 곧 가서 가진 모든 것을 찾아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준 후에 나아와 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한다. 또한 참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기반적인 계명들을 지킴에 있어 이러한 일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

참된 신자는 근형 집된 마음의 평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 상태에서의 만족감과 앞으로의 더욱 중요한 부름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해야 하리라. 어찌 내가 부름으로 내게 명하신 일을 보다 더 많이 일하려 하겠느냐?” (엘마서 29:3, 6) 현재의 기회를 활용하여 더 큰 만족감을 얻는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 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무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정치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너는…… 것들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 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였기에, 구하는 것과 더불어 인내, 신앙 및 참된 의도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잎이 연구합니다.”(요리와 성략 9: 7-8 참조) 참된 신자의 기도는 항상 아니더라도 때때로 영광을 줍니다.

참된 신자는 올바른 행동을 하며 그 올바른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확고하게 그들을 바라보는 이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찰을 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 들을 나쁘게 말하고, 잘못 평가하며, 냉대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 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들을 높이할 때, 참된 신자는 그들에게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진실된 친사를 보낸다. 그들은 동료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잃은 것이 용서하는 것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 (요리와 성약 58:42)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참된 신자는 다른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행한 실수를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전 18:22 참조)

참된 신자는 죄에 대해 결책하지만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거나 공정합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료관세 하늘의 힘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행복합니다.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는 의료관세 하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으나, 환기차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유머는 현소와 질망이 있는 공간을 옳음을 아나다. 희망이 있는 고상한 유머입니다. 그들은 조용하며, 하늘에 의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지 않고도 시대의 표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는 "은전한 희망의 밤" (니파이아서 31:20)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참된 신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약점을 닦고 의롭게, 단호하게 우리의 길을 나아가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성으로 갑니다. 바로 그 곳에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묶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오실 그분의 깊고 신성한 소방으로 이사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친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단일 우리가 지금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때 우리를 사망스럽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곧 얻게 될 여러분에게 일으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여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된 세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 영적으로 발전하기를 간주합니다. □
위의 왼쪽: 부다페스트를 관통하여 흐르는 대뉴브강.
위의 오른쪽: 새로 출판된 헝가리어 몰몬경을 전혀 받은 화이즈의 화원들.
아래: 자신들의 몰몬경을 들고 있는 미야
빌레리아와 소보
에르제베트.
형가리 국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1991년의 크리스마스가 옛세밖에 남지 않았다. 일기 예보에 따르면 동유럽지역에는 눈이 올 것이고 도로 사정 역시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행을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였으나 요하네스 구트야 형체에게는 꿈처럼 할 약속이 하나 있었다. 전혀 알 수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독일의 프레드리히도르프에 사는 구트야 형제는 교회 멤버로서 여린 날에 형가리 부다페스트 선교부의 제임스 엘 월드 선교부장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오랫동안 학수 고대하던 형가리어로 된 불문경이 독일에 도착하면 바로 가능한 한 많은 불문경을 자신의 차에 가득 싣고 형가리어로 가는 것이다. 조상 중에 형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형가리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트야 형제는 목요일 오후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형가리 셰판이 크리스마스 없이도 인해 잘못된 끈요일이 앞에 새로 나온 불문경을 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다. 구트야 형제와

워드 선교부장은 형가리 성도들이 결코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다는 공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지금 형가리 성도들이 상상도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이 오는 중이었다. 월드 선교부장은교회 회원들에게 또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도 형가리어판 불문경이 출판이 일방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었다.

예초에 구투야 형제는 이 여행을 9월 중에 하길 희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투야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9월이 되어도 불문경은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형가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다림이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형가리 성도들은 이미 오랫동안 형가리어판 불문경이 출판을 학수 고대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 2월에 선교 사임을 시작한 빅터 시포스 장로는 이 평가를 밝혔다. "형가리어의 처음 도착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말만 있으면 우리 말로 된 불문경을 갖고 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리나 바로 그 '별 말만 있으면'이 항상 '조금씩 늘어지기'하겠습니까."
장로의 "야심 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100쪽 정도 변역을 마쳤을 때, 선교
부장은 그들에게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당시의 일을 혼
장로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
하였다. "내 인생의 반이 넘어가 버
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곧 혼 장로는 귀환하였다. 약 4년
이 지난 1914년에 마지막 선교사가
헝가리를 떠나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1987년 설이시도 정원
회의 러셀 엘 벨슨 장로가 헝가리
국로를 북쪽 전도를 위해 헌납하기
이전에는, 외국에 있던 극소수의 헝
가리인들은 이미 체력을 빼는 상태였으
며 홀몬도 일부분만이 헝가리로
번역되어 있었다. 하지만 헝가리 국
내에서는 더욱 이상 선교 사업이 행하
여지지 않았으며, 홀몬도 전체를 헝
가리로 번역하는 일도 진전을 보
이지 못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선교사들이 다
시 헝가리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
자, 그들도 오래 전에 혼 장로가 졌
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료의 부족이
었다. 홀몬에의 몇몇 변역문 이
외에, 50권도 되지 않는 친교가와
복음 원리와 같은 지극히 기본적인
소수의 자료만이 헝가리어로 준비되
어 있음을 뿐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홀몬이 없는 어
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에 있는 많은 회원들은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 홀몬에 대
한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었다.

구투야 형제의 크리스마스 여행

헝가리의 교회 회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네
였다. 마침내 홀몬이 헝가리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제 독음을
출발한 오스트리아를 거쳐 헝가리에
이르는 약 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홀몬을 전달하는 일이 구투야 형
제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목요일 오후 3시경, 구투야 형제
는 새로 출판된 헝가리어판 홀몬경
1,600부를 승합차에 싣고 여행을 시
작하였다. 오스트리아 국경을 오후
9시경에 통과하고, 다음날 새벽 3시
에 헝가리 국경을 통과한 구투야 형
제는 급요일 아침 일찍 예정대로 저
여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정작 여
기셔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헝가리 국경에서 정부 관리들이
자신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홀몬을 자랑스럽게 보여 주고 있는
바르보초 도나, 카자크 다미스,
페기베르네키 아그네스(왼쪽부터부터)
구트아 형제에게 저여시에서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줬으나 정작 저여시의 세관원들은 통과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저여시에서 통과하는 두 명의 선교사들과 노력해 보았지만 이렇게 해 보지도 못하고 몇 시간이 지나 이런 오류에 구타야 형제는 부다페스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그 곳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니 바라던 도움은 바로 오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구타야 형제가 도착하였을 때, 시포스 장로와 그의 동반자 큰 다미아나 장로가 신교사 서무실에서 사물을 기대하고 있었다. 부다페스트에서 지구 케임브리지로 봉사하고 있던 두 선교사는 구타야 형제를 도와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몰락은 세관을 해결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 그들이 세관에 가서 한 세관원에게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헤어져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오시오."라는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년 1월이면 크리스마스가 끝난 다음이 아니거나 미국 유타 주 모건 출신이라는 거대한 형제여에서 대니 아부모님 밑에서 형제여를 배우고 맞하며 자란 시포스 장로는 계속 세관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또 시포스 장로는 슈명을 그렇게 말하고 이 형제들은 종교 서적이며 평상시 중요한 책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신념으로 사람들이 이 책을 크리스마스 때까지 받아놓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책을 나오기 바신 날 동안 학교로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시포스 장로는 말하였다.


그러면 시포스 장로는 어떤 발을 하여 세관원의 마음을 바꾸는 않았을까?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확신을 시켰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 원리가 감지기 마음을 바꾼 데에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포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까지의 조금하도 헛한 노력을 바꾸어 그 관리는 선교사들이 책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또 말하였지만 아 니라 책의 운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제가 개인적인 책임이 지지 않습 니다. 구타야 형제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1,600부의 몰락은 형제여

부다페스트까지 전달함으로써 구타야 형제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몰락은 회원들이 정 규적으로 보이는 10개 도시에 배서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리스마스 3일 전인 일요일에 받을 수 있도록 몰락은 배송하기 위해 남아 있는 시간은 허루로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금요일 저녁, 선교사들은 호텔 추자장에서 구타야 형제를 만나 그들의 차에 몰락은 실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가 일요일 교회 모임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될 다른 선교사들에게 몰락을 전달하였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선물

시포스 장로와 다미아나 장로도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 의 차에 몰락을 싣고 이를 다른 도시로 배달하였다. 그들의 마지막 기적의 중요한 하나가 형제였다. 동부의 테브레첸이었는데, 두 장로는 그곳에 12월 22일 일요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에 마을 전했다. 시포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곳 테브레첸 지부에서의 반응을 겪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공신당이 통치하던 시기에 형제여를 발출하여 침례를 받고 다시 선교사로서 고국에 돌아온 형제여인 이슈트반 페렌데 장로가 직접 몰락의 출판 소식을 전하였다. 당시에 테브레첸에서 티셔츠 캐리나라고 챔짜 선교사는 그가 지역 회원들에게 이란인의 중요성을 대해, 특히 에스토 테브레첸 장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몰락을 받으라는 페렌데 장로의 메시지를 강조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그 책을 읽
다른 곳의 회원들이 보인 반응 또 한 이와 마찬가지였다. "이번 곳에서 연합회 봉사자들이 연합회를 가슴에 꼭 겪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연합회를 정말 오랫동안 화해 고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휴먼 선교부장은 말한다. "사실 영어나 독일어나 구사할 줄 아는 몇몇 회원들은 그것이 거의 모든 휴먼 회원들은 연합회의 일부 발전분반을 읽고 교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2세의 개심 이야기나 애(album 선교 사업, 또한 그 밖의 다른 이야기들을 전하며 면역된 연합회에서도 읽기를 기회가 없었습니다."자신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만을 읽는 회원들이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었다. 세기스페허바 지부의 골목 올리아나 자매는 책을 빌린 첫 주에 연합회를 두세 번이나 읽었다고 희생 장로는 말하였다. 슬로보트 헤어의 타스카 가보여 형제 또한 자신의 지부의 한 자매가 아들간의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중에 연합회를 전부 읽고 말하였다.


페스포름에서 봉사하고 있던 휴먼 선교의 리히텐마이어 가족은 자신이 전체 중 첫번째 휴먼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그 책을 회원이 된 지 여섯 달만에 페스트 에버 자매에게 주었다. 모임에 참석하고 있던 피트 자매는 휴먼 활동 소식이 발표되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기 전에 제가 자매님께 드릴 일 을 맡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저는 휴먼 한 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은 몇 가지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휴먼이 제가 전달 한 최초의 휴먼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저에게는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부다페스트의 쿠파라 산도르 형제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한 권의 책으로 된 휴먼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새로 테어나 다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전한 그림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기분이 있었습니다."

월드 선교부장은 말한다. "제가 지난 감동적인 기억 중 하나는 2년 동안 각회 횡단으로 갔다가 휴먼을 직접 보게 한 자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자매는 휴먼을 가슴에 죽 다섯 번이나 헤비로써 소리내어 웃기 시작하였습니다."

1908년에 힐 장로가 시작한 기간 여행이 이제 끝나 나타나 도착으로, 드디어 헤이리아이로 된 휴먼이 오랫동안 충실하게 기다린 헤이리아이 교회 회원들의 훈에 안긴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헤이리아이 회원들은 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테브레첼 지부의 소보네스 자매가 시포스 장로의 물론경에 적은 글귀가 물론경의 번역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저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드려요."

"그 당시 크리스마스에 받은 물론경을 우리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라고 타카스 형제는 말한다. "이제 그 책이 오래 되고 또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낮기는 했습니라. 지금 새 물론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최초로 받은 물론경을 가정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가장 홀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헤베시 형제와 마찬가지로 형가리 성도들에게는 형가리에 된 물론경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가 꿈의 실현이었다. 물론경을 전달하는 특별한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구투야 형제는 크리스마스 절기에 선물을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 Slayer."

1991년 크리스마스 여행이 끝나고 얼마 후 구투야 형제는 형가리의 부담을 받아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젊은이 버스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러한 모습이 중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에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보고 있는 책은 낮기는 하여도 개 средне 사용된 혼적이 역력하였다. 좋더라 가까이 가셔 보았을 때, 구투야 형제는 감격 눈물을 놓았다. 향기로운 과판색 표지에는 물론 경에 쓰여져 있었다. 그 당시 구투야 형제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었다. 구투야 형제가 일년 전에 전해 준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전히 기쁨을 전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

주

1. 형 장로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서적에서 인용되었다. 존 앤시 헨릴: 일기 및 전기 자료, 아이비 헨릴: ブレット 앤드 헨릴 (로간, 유타: 케이 피스미스 앤드 션, 1962)

2. 이 기사에서 형가리 사람들의 이름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형가리 전통에 따라 기술하였다.
왜
날 깨우지
없었죠?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철심인 정현희

통

가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젊은 시절, 나는 그 곳에서 세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다. 통
가의 크리스마스는 일년 중 가장 무덥고 습
기가 많은 계절에 들어 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영
은 거울이 크리스마스인 나의 고향에서 느꼈던 것과 똑
같은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해
주었고, 이곳 저곳에서 음악과 노래 소리가 울려나갔으
며, 화려한 느낌과 즐거움이 모든 것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서로 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불경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은 드물었지만 사람들은 사람과 소식과 친
절이라는 풍요로운 선물을 서로 주고 받았다.

크리스마스 마침 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방문하러
왔던 아홉 살 난 소녀가 감자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 소녀의 조부모는 모든 시간을 다 바치고 아이를
간호했지만, 몸의 열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그
들은 소녀에게 병가 축복을 해주도록 선교사들에게 부
탁했다. 우리가 축복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라는 영의 지시를 느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도 고양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하여 다른 일들을 수행해 나갔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그 지역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한 분과 함께 여러 가족들을 방문하였다.
우리가 방문을 다 마칠 때쯤, 나는 그에게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밤에 또 방문해야 할 것이 없는
지 물었다. 그는 마침 전의 그 소녀가 아직도 많이 아
프고 할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가셨다고 들었다면서,
"할머니가 아주 피곤한데 이마 오늘 저녁 그 집을 방
문해서 아이를 돌봐야 주고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
록 해주시다."라고 제안했다. 참 풍요로운 생각이다! 왜
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 아이의 질병을 방문했을 때는 이런 저녁이었다. 우
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설명해 주자,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역력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한참
차다라운 후 손녀가 몸이 아프다고 말하였다. "지난 삼일
동안 밤낮으로 그 아이를 돌보았어요. 내가 오래 하룻
밤도 그 애를 돌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여태까지 수건에 물을 적시고 그녀의 체온
을 들여다보려고 부채로 시원하게 부쳤으나 이틀 동안
소녀는 싱그러워서 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손녀가 날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므로 밤 늦게까지
우리를 돕겠다고 말했다.

내 동반자들은 할머니에게 그러진 필요가 없고, 기서
쉬라리하고 했다. 우리가 아이에게 부채로 얼을 식히면
أخر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서 좀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마침내 자리에서 떠났다. 나는 할머니
가 앞으로 가서서 꽤 잠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즉시 부채를 부치며 이마의 얼을 식히기 시
작했다. 아이는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아이의 슬소리는 이상했고 얼은 높았으며, 눈을 감은
체 있었으며, 신은 씨는 가슴 아프고 촉은하게 들렸다.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한 사람의 것은 수건을 잡고 있으며 다른 한 사람의 머리에 부채를 부어서 습한 공기를 아이의 앞과 머리 주변에 쓰이게 하는 것이었다.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물을 가져 오고, 수건을 끼치고, 계속해서 부채를 부착하는 일을 하느라고 우리는 돌고 주저게 되었다. 나는 할머니가 지난 이들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있던 곳에 오래된 태엽 시계가 있었다. 그 시계는 밝을 때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밝을 때의 간호를 하려면 무언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동반자는 다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우리가 교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장로님이 먼저 한 시간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난 후 저를 채우면, 장로님은 한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고, 제가 그 아이를 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좋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누가 먼저 시작할지 물었다. "저부터 먼저 할래요. 장로님이 먼저 쉬시죠."라고 동반자가 말했다. 밤 12시가 되어서 그녀가 나를 깨웠고, 나는 1시까지 한 손으로는 부채를 부착하고 한 손으로는 수건을 들이켜서 녕녀의 이마를 닦아 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를 깨웠으며, 그녀가 2시에 다시 나를 깨웠다. 다음 날 차례가 4시이므로 그녀가 나를 깨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몽상 피곤했지만 이렇게 할 수록 우리는 하룻밤 동안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기억하는 다음 일은 내 눈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갓자기 갑자기 깨어 뒤 )); 인이나 "오, 도대체! 지금 몇 시지?"하고 놀라서 왔었다. "6시, 오, 6시야! 왜 4시에 낮 깨우지 않았죠?" 동반자에게 했다.

그는 만면에 미소를 가득 찼고 있었다. 그것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나와서 그의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힘의 가득한 흔적을 만난 것이다. "너무 편하게 보여서 계속 자게 그냥 두었죠. 그렇게 장로님이 드리는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왜 그러한 생각을 먼저 가지 못했을까?"하고 다시 생각해 보았다. 내 동반자는 날 위해 밤을 세웠던 것이다. 주님께서 잠자고 있던 그의 제자들에게 오서서 "너희가 아버님과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니"(마태복음 26:40) 주님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 그분은 하룻밤 동안에 세상을 영원히 기약할 가장 위대한 일에 행헌하였던 것이다.

나는 약간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으나 다른 동반자의 얼굴에 깃든 기본 표정을 볼 수 있어서 나 역시 행복했다.

그는 나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이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다. 그는 나에게 줄 물건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줄 수 있도록 바려주며 그가 줄 수 있는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와 그리고 다른 선물을 줄 때 단순히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닌, 우리들 자신을 은혜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바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지 참으로 금급하다.

진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지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아침 연관에서 그 아침 고동소리운 선물 씨는 그랬고, 열은 떨어졌으며, 우리는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아침의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셨다.

우리는 아침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할머니가 방을 노크했다. 할머니는 얼른 나오셨는데, 아마도 촉박한 사태가 지나갔으나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혼란으 로 나오실 때에, 손녀는 어머니와 함께 바로 거기에 서 있었다. 우리는 반면에 웃음을 지르고 한 목소리로 의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의 벗
1994년 색인

본 색인은 주제 색인과 저자 색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제 색인
그
가르침
가르침의 손간, 메리 모일, 4월, 24쪽
나 자신보다 더 큰 어떤 법, 카산드라 린 스파이, 5월, 9쪽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콜본 비
형클러, 토마스 에스 문슨, 멜 리설 밸리, 미셸 윌리엄 클래어, 10월, 55쪽
대가 가르침 차례, 에빈 바커, 3월, 44쪽
모든 사람이 참여함, 브랜드 에이
바로우, 8월, 18쪽
심대 강인성의 지도, 테브라 레서, 10월, 24쪽
여인들이 교묘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 시리 아이러니 스완
은 올리, 8월, 26쪽
여인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위하도록 가르침, 투스 비 라이트, 7월, 84쪽
자녀들의 특별한 선물, 멜린 알 리바, 7월, 31쪽
자녀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오, 벤 비
뱅크스, 1월, 28쪽
창조사는 창조적 능력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조이 레이더 린드비그, 5월, 18쪽
최고의 교사, 원디 아버지와 니, 9월, 46쪽
가장 복음 교육
“그 사람이 오늘 나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올리 웹스바, 8월, 8쪽
가정의 풍
“다음에는 메릴리오" 엘 린 제리, 7월, 36쪽
가족 관계 (부모의 역할 참조)
가정, 에드니 와이 고마프, 1월, 30쪽
소중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법, 지애코 레
오카자키, 1월, 94쪽
기운을 내어, 칠 윤수미, 1월, 96쪽
다 같이 하나되며, 리차드 엑 토나, 4월, 38쪽
다양성을 통한 움직임, 멜리 엘비드라
트, 1월, 89쪽
“다음에는 메릴리오”, 엘 린 제리, 7월, 36쪽
“나는 가족을 특별히 돌보겠습니다, 네
에이 맥스함, 7월, 88쪽
성도들에게 추는 권고, 에드먼 데프트
벤슨, 2월, 2쪽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리마 다이크, 10월, 44쪽
아버지 와 가족, 보이드 캐이 개머, 7월, 19쪽
아버지와 엄마, 멜리브 브리아, 8월, 88쪽
어린이란 12쪽
이렇게 하면 저희 가족들을 단합시킬 수
있을까요?, 6월, 20쪽
오인령 환경에서 자녀를 카우, 조지에
크리스텐슨, 1월, 11쪽
와드/저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비에게, 벤 비뱅크스, 1월, 9쪽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signal까?
로비트 어 웨일즈, 1월, 8쪽
자녀의 뼈와 영혼을 안에서 치유시요,
고든 비 헨리워, 1월, 54쪽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오, 벤 비
뱅크스, 1월, 28쪽
가족 역사(성전 및 성전 사업 참조)
제3 사업 일의 날, 레이커 엑 테일러, 11월, 6쪽
신앙의 열매, 토마스 에스 문슨, 5월, 2쪽
주님께서 온 보람, 제니 샤일러, 4월, 8쪽
건강(건강, 삶 참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임을 알게
되었다, 11월, 48쪽
나의 건강, 고든 비 헨리워, 1월, 51쪽
노래 가사, 헤이리 메리리, 4월, 33쪽
모든 입들이 제가위의 작은, 캐런
존슨, 6월, 34쪽
선교 사업 - 우리의 책임, 데이비드 어
헤이트, 1월, 61쪽
시장을 받은 후에 얻은 건강, 월리엄 저
다이어, 9월, 20쪽
영원의 시간, 칼로스 에이치 야마도, 1
월, 44쪽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제스코트, 1
월, 86쪽
영혼의 희망, 멜리 엘비드라, 9월, 90쪽
은 마음을 다하여, 케이 에이치 보일, 8월, 44쪽
이의 주 구제주, 조지 비 러스턴, 1월, 1
월, 50쪽
자신의 건강, 글렌 웨이드, 3월, 62쪽
진정한 건강, 리처드 더비 해럴, 5월, 1
월, 54쪽
티탄의 선과 건강, 마빈 캐이 가드리
내, 9월, 34쪽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측부, 아담다
민스, 3월, 33쪽
“하느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제프리 알 올랜드, 1월, 13쪽
감사
감사의 마음, 펠리다 라이트, 11월, 10쪽
감사할, 에드니 와이 고마프, 1월, 30쪽
감사, 로이드 피 조지타, 7월, 27쪽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디
에드워드, 5월, 58쪽
개성(개성 참조)
성적인 기초, 디안 워커, 11월, 40쪽
결국 그것은 실현이었다, 메이 베르세
도스 파킨슨, 10월, 29쪽
94세에 다시 태어난, 도이스 클로프, 6월, 24쪽
가족을 헤지, 아마다 메리비, 2월, 48쪽
나는 그의 변경만 사설을 믿고 두었다
있었으나, 알프에 알라우, 12월, 30쪽
내 마음에 드러워진 철벽, 우승라 페셔, 9월, 24쪽
내 자신을 단련시키거나, 건 피터슨, 10월, 48쪽
문학 주님 소책자, 가밀리아 알리매스
서비스, 8월, 22쪽
미로스테리아에서 새로운 향로를 만들었,
알바 김녀, 12월, 40쪽
“이동 속에 겪으며, 부른 찬송가”, 마빈
캐이 가드리, 2월, 8쪽
함께 하느님의 안식, 아일리스 프로포
텐 펜리스, 10월, 46쪽
개척자
먼저 변한 장의 시간, 엘마 아리아
군 stan, 11월, 8쪽
사라 마릴라 파로, 조이 존슨 히든, 6월, 5
6쪽
아프리카의 북삼 개척자들, 두 테일
레이버, 5월, 36쪽
거리
와드/저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의 일부, 비지니아 에이지
파이어, 1월, 79쪽
결심(결심 참조)
배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동통하되,
고든 비 헨리워, 8월, 2쪽
“내 부하의 영정에 영향을 끼쳤게 하자”,
델레런 엘 윌리엄, 1월, 98쪽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성정, 하워드 타돌루 헨터, 11월, 2쪽
아프리카의 현대 음사, 몬트 제이
브리더, 1월, 63쪽
“제가 하는 일만이 있었습니다: 대주의
루시아 와드 존슨그래프, 데이비드 미쉘, 6월, 10쪽
결혼
민들레에게서 얻은 응답, 믿의 프리즈
레이에스, 12월, 32쪽
위대한 창조의 계획, 알리 에이지 워스, 1월, 72쪽
현대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캐이
페커, 1월, 21쪽
경진
산 속에서의 경진회, 캐롤 엘리 쉴러, 
3월, 50쪽

경 Kills
에이던 왕의 요셉 스미스, 로버트 엘 
밀라, 6월, 26쪽

경 전 공부
경전에서 배우는 평생 동안의 탐구, 9월, 
25쪽
교제 이스라엘의 선물, 리네트 에이지 
김리, 8월, 14쪽
구약신서를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우고, 
예약 하이든 존슨, 2월, 41쪽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제5 편집, 11월, 48쪽
금주의 성구, 스테이시 카일드 워커, 
6월, 9쪽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예언함, 더 헤비 윤든과 앞 놓은 조, 
4월, 10쪽
성구 창기, 주디 에드워드, 8월, 
이런이란 10쪽

개보(가족 역사 참조)
고전(결심 참조)

일어나서 방어하라, 제임스 이 
포우스트, 8월, 46쪽
"내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필 레슈가, 
5월, 16쪽

고등(시편 참조)

공예
12월, 어린이란 6쪽

차바라타

품에서 주는 소책자, 간합의 알시티 
버스케, 8월, 22쪽
터질 신전과 간절, 마빈 케이가드니, 
9월, 34쪽

한용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가르쳐 
주요소", 리철 엘 앨런, 7월, 60쪽

교만
마음의 큰 변화, 스페서 제이 콘디, 1월, 
15쪽

교회 교육 기구
로마의 바른 길에서, 디멘 위커, 3월, 10쪽

교회 정의회
형제의 형, 엘 벨레드라, 1월, 76쪽

구약신서
고대 이스라엘의 선물, 리네트 에이지 
김리, 8월, 14쪽
구약신서를 좋아하게 되는 법을 배우고, 
예약 하이든 존슨, 2월, 41쪽
도서, 비비안 푸름, 6월, 어린이란 50쪽

출음 반: 하나님의 시험과 강림 및 
본보기로서 조명한 분, 에스 펜드 
브라운, 3월, 34쪽

구원의 계획
병가의 불명, 터널 앙 네스, 1월, 33쪽
위대한 변형의 계획, 펜디 에이지 육스, 
1월, 72쪽

기독

그 사람이 모든 나아질 줄 알아요. 
에드 엘 스미스, 8월, 8쪽

기독성
기독을 내어, 진 풀로우, 1월, 96쪽
바그치, 고달습니다, 쥐리안 다이크, 
10월 44쪽
영의 속삭임과 자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11월, 
28쪽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브리, 1월, 
26쪽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경, 제 빌럼, 3월, 
60쪽

기쁨
상반되는 것, 기쁨과 가슴 좋은 생활, 
부르스 시와 마리 하이든, 3월, 14쪽

기적
기적을 내어, 아담 다리오, 2월, 48쪽


네덜란드

함께 죽는다는 인생, 아델리스 프렌트 
헤티스, 10월, 45쪽

노인수안신, 테니스 비 
테니스 비 노인수안신 장로, 차바라 
퍼타인, 9월, 어린이란 6쪽

뉴욕
브롱크스의 소년, 엘리치 터너, 4월, 
20쪽

도리

다리바, 휴리오 이 
휴리오 이 다리바 장로, 핸 필버어, 6월, 
52쪽

도리

"사막에 온사나 불러온 것은 손에 대처 
없도록 하라", 에디치 비크 피터슨, 
1월, 42쪽

오염된 환경에서 자녀들 카운, 조 서아 
크리스번스, 1월, 11쪽
자녀들 불과 트위스트 만에서 카우터오, 
고든 비 헨리, 1월, 54쪽
청소년이 성적인 순절을 선택하도록 
도와준, 조이 터너 디더바그, 5월, 18쪽

독일
9월 다시 태어날, 루이스 포드, 6월, 24쪽
기독성의 신교 사상, 테리 에이 헬리, 
2월, 12쪽
네 마음에 드러워진 침략, 우슬라 피셔, 
9월, 24쪽

"아니, 그 네덜란드 사람들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시 알 게르슈만, 6월, 44쪽

대관장관 메시지
가장 가까운 것, 고든 비 헨리, 
3월, 2쪽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나 
고든 비 헨리, 8월, 2쪽

신앙의 철학, 보브스 에스 존슨, 5월, 2쪽

미의 조언, 폭파스 에스 존슨, 6월, 2쪽

우리가 교회의 의지 numa 주는 
중요한 상징, 하워드 더블러 헤럴, 
11월, 2쪽

"아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는 살해당 해요" 
에드라 펜드레 번, 4월, 2쪽

구름을 따르듯 우울하게 간직하십시오, 
하워드 더블러 헤럴, 10월, 2쪽

창조 신선한 일을 함, 고든 비 헨리, 
12월, 2쪽

그

리시아

리시아에서 첫우운 우정, 모던 클레이턴, 
3월, 46쪽

레반, 바이어, 페타, 마리아스 
기독성의 신교 사상, 테리 에이 헬리, 
2월, 12쪽

리, 펜드레 비 
해밀턴의 비: 주님의 화살품에 담긴 
같이 놓은 화살

그

마태로 가족

영원을 위한 도로 여행, 리사 에이 
존슨, 5월, 46쪽
발로가의 아들들에게 권고함. 8월, 어린이란 2족
발로가 싸움에 대해 가르침. 6월, 64족
조셉과 엘리스와 함께 4월, 어린이란 50족
미술
요셉 스미스, 후계의 예술가, 6월, 36족
무시된 사람들: 아프리카의
발일성도들이 보낸 미술관 및 기념품,
마주 드리며 코리나, 5월, 32족
미크로소비아
미크로소비아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기. 3월. 40족
발로, 12월, 30족

발로교적
발로 교사로 부산, 30년, 이르마 드
맥케나, 3월, 20족
발로 교육, 메시지
경전에서 배운: 생생 동안의 규칙, 9월, 25족
신성에 참가함, 8월, 25족
성공의 은하, 9월, 25족
성공과 함께 구체적 가치감, 4월, 25족
신성의 축복에 응전한 참가함, 2월, 25족
영적인 힘, 12월, 25족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추천하는 일은
평생의 과정이며, 10월, 25족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힘을 얻음, 6월, 25족
리더의 축복을 더욱 깊게 드러내며, 5월, 25족
특별한 신권 축복을 받음, 11월, 25족

육도
심장을 지키고 신전을 존중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1월, 36족
"파도우파", 니 이닉스, 1월, 18족

육도
육도가 밝게 나가서 심리 통통하네.
고든 보 헴들리, 8월, 2족

벤슨, 에드라 벤슨
에드라 벤슨은 대강, 겸 펄보트, 7월, 부부
에드라 벤슨의 아내, 캐리 릭스 아담스,
9월, 어린이란 14족

브로드
나의 책의 알기, 스티븐 지 비돌프, 9월, 32족

봉고첩
봉고첩을 받음, 리처드 지 스코트, 7월, 7족

영적인 봉고첩을 위한 신성한 치방,
브로드 에스 캐스, 7월, 17족

보고
보고의 손길, 메도노우부지, 9월, 30족
부수
먹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 제임스
이 파우스트, 7월, 4족
라시아에서 많은 우정, 또한 플레이드
3월, 46족
부수 및 정체, 아랍 아달리, 1월, 31족
상호주조: 그 지도적인 원리인 사람,
1월, 92족
부수는 당신, 메도노우부지, 3월, 32족
아드/자부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 비지니 아베
파이어, 1월, 79족
우리에게는 모든 위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실, 코리나 코리나, 7월, 29족
조상들을 발견한, 아라 카시브
패리스, 9월, 44족

"주 예수를 쓰러 울고", 주디 에드워드,
12월, 어린이란 7족
신성에 참가함, 5월, 30족
특별한 조상, 비지니 아브라함, 5월, 60족
부모의 역할(가족 관계 참조)
가르침의 순간, 메디 모리, 4월, 24족
나의 덕을 명명, 8월, 40족
어린이들이 고요하고 작은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움, 시 테리 워너와 수인
웹, 8월, 26족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처럼 잊게 하십시오.
로버트 디 헤일즈, 1월, 8족
자녀들에게 은혜로운 음악에서 캐리발로
고든 힐들리, 1월, 54족
청소년이 영적인 성장을 선택하도록
도와주, 조이 샐러스 린드브리지, 5월, 18족
부부(예수 그리스도 참조)
"사람이 주으신 아내 다시 살리아요?",
갈로스이 엘레아, 7월, 10족
"이 내가 창고하고 내리도 살피오이다"
에드라 벤슨의 아내, 4월, 2족
인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적, 고든 비
힐들리, 7월, 72족
파리의 부활절 예레지, 제임스 웨리스,
4월, 60족
부활절(축리, 부활 참조)
브라질에서의 엉덩 모임, 5월
브로드크스의 소년
브로드크스의 소년, 엘리자 터니, 4월, 20족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생물학
당일
산의 고단을 향하며, 토마스 에스 본슨, 1월, 68쪽
우리 주 구석의, 조설의 위 스파, 1월, 95쪽
고독하고, 토마스 에스 본슨, 1월, 26쪽
나는 그가 예전에, 리차드 피 펌퍼, 1월, 72쪽
슬픔

계명을 지키라, 주디 앤드워드, 1월, 56쪽
슬픔하는 해방, 조사의 위 스파, 1월, 39쪽
영적인 지식을 얻는, 리차드 피 펌퍼, 1월, 86쪽
예수님을 맡기 위해 노력할, 에프 펜던 하드슨, 1월, 82쪽
"우리가 이어 한고?", 한스 비 펜퍼, 7월, 86쪽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엘 워터, 1월, 66쪽
주님을 떠나도 우리에게 권유함, 하워드 더블린 헌신, 1월, 10쪽
행복의 추구, 더블린 윤일 헌신, 1월, 81쪽
스피어스, 요셉

나는 그가 예전에 사심을 믿은 수가 없었습니다, 양과 알 불우요, 12월, 30쪽
예언자가 요셉스-로부터 가르칠 교사, 토마스 에스 본슨, 6월, 2쪽
모든 일들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헨리 잔스턴, 6월, 34쪽
예언자의 요셉스-스피어스, 로버트 엘 헤든, 6월, 26쪽
요일은, 더블린의 예언자, 마린 케이 가드너, 6월, 36쪽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고든 비 헤들리, 7월, 72쪽

스카우팅

위로 양한, 토마스 에스 본슨, 1월, 47쪽
토마스 에스 본슨 부대관장 스카우트상 수상, 1월, 46쪽
스페이스
스페이스의 편집 콜린, 5월, 31쪽
슈퍼
마음의 큰 변화, 스펜서 채이 코디, 1월, 15쪽
시원

상반되는 것, 기쁨과 기분 좋은 생활, 브루스 시와 마리 헤이든, 3월, 14쪽
이전과 이후, 다이러 워런, 11월, 26쪽
최고의 고독, 토마스 에스 본슨, 1월, 26쪽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리차드 피 펌퍼, 7월, 53쪽
관찰의 평판, 안나 모라 본스테인, 5월, 26쪽
시바부쿠로, 왜 케이
세이 마사시 사부쿠로 장, 전 펌퍼, 4월, 53쪽
신원
"내 양을 막아라", 리차드 피 펌퍼, 7월, 45쪽
모든 주님들과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 보이드 케이 헤들리, 1월, 14쪽
변화를 수용하는, 토마스 에스 본슨, 1월, 33쪽
란의 저지르고 신임을 존중해, 제임즈 피 펌퍼, 1월, 36쪽
신성한-성숙한 해일, 토마스 에스 본슨, 7월, 49쪽
신원의 축복에 은혜를 공유, 2월, 25쪽
아브라함의 정단: 믿음을 위한 축복, 토마스 피 펌퍼, 1월, 42쪽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보이드 헤들리 피 펌퍼, 1월, 54쪽
특별한 신앙 축복을 받은, 11월, 25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고든 비 헤들리, 7월, 53쪽
원주의 영원을 위해서, 보이드 케이 헤들리, 1월, 21쪽
회의 연결, 엘 러셀 밀레, 7월, 76쪽
선언 정회
세부라는 날, 네크작표본을 살리너스-보이드, 8월, 32쪽
선언 축복
함께 즐기의 평안, 5월, 26쪽
선언-에이지: 죽음, 9월, 15쪽
아이야: 마야, 어디 왔어?, 버나 터린 본스, 9월, 15쪽
신앙(건강 창조)
구제주의로부터 나오는, 일, 지혜로운 영, 9월, 19쪽
그 자매님이 오늘 나아갈 줄 알았어요, 올에 잉 스미스, 8월, 8쪽
가난한 책임, 아나다 테리오티, 2월, 48쪽
나의 몰입 장벽, 8월, 40쪽
다양성을 통합, 엘 러셀 밀레, 1월, 89쪽
배드로가 외에 나가서 심히 불국사나, 고든 비 헤들리, 8월, 2쪽
보물, 본다 페터, 6월, 61쪽
보호의 순천, 테오도루스 지 바바안, 9월, 30쪽
스램서 더블레 컬럼: 그는 오로지 도달하던, 펠퍼터 펜퍼, 3월, 26쪽
신앙의 기초, 지에 헤들리, 1월, 40쪽
신앙의 애로, 토마스 에스 본슨, 5월, 2쪽
신앙이 증가된, 펠퍼터 펜퍼, 7월, 94쪽
신앙이 지배됩니다, 비너리아 예치 피 펌퍼, 7월, 92쪽
"아니, 저 매탄란 사람들들인 지언 어떤 가고 있습니까", 시 알 헤드보, 6월, 44쪽
영원한 시간, 토마스 에스 본슨, 1월, 44쪽
영적으로 성장함, 콜린 스테이프, 7월, 96쪽
"대초보리", 닐 에스 백스, 1월, 18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펠퍼터 알 헤들리, 1월, 13쪽
"영적인 지식을 얻는", 리차드 피 스팀스, 1월, 86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토마스 에스 본슨, 7월, 98쪽
주님의 사랑, 존 에이리 그로버, 1월, 26쪽
심장뿐이
2월, 57쪽: 3월, 64쪽: 5월, 53쪽: 6월, 59쪽: 8월, 에러리안 5월: 9월, 에러리안 16쪽: 10월, 에러리안 12쪽: 11월, 에러리안 7월
심장조
나의 갑증, 고든 비 헤들리, 1월, 51쪽
45년 동안의 심장조 개정, 바논 여일, 12월, 8쪽
심장조, 토마스 에스 본슨, 7월, 33쪽

아본 스피어스
기쁨으로 가득 차 영원한 운행을 위한 개인 경로, 헤이 되블 데농머, 40쪽
위로 받은 그, 토마스 에스 본슨, 1월, 47쪽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성약: 믿음을 위한 축복, 헤어 피 캡스, 2월, 42쪽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북부 개척자들, 이 메일 레바론, 5월, 36쪽
준비된 사람들: 아프리카의
"말일성도달이 보낸 미소품 및 기념품, 마조리, 드레이 콜린, 5월, 32쪽"
어린이
가르침의 순간, 메리 모럴, 4월, 24쪽
“내외 어린 것들을 보라”, 고든 비
형물리, 또사 에스 온손, 몬 리살
발레드, 미셸린 피 그레블리, 10월, 35쪽
어린이들이 주말 앞에서 바쁘게
행해듯이 가르침, 부스 미 하이트,
7월, 84쪽
자녀들의 특별한 신분, 밀린 앨 리바디,
7월, 31쪽
자녀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오, 벨 비
벤그스, 1월, 28쪽
영심바도르
먼저 쯤은 정의의 사과, 엘마 아나라
곤돌레스, 11월, 8쪽
영성
“이 날의 대니가 될 것조, 전세계의
애자요스 엘로, 4월, 2쪽
양심
“내 밖의 행함 행함을 정평가게 하여”,
엘레인 엘 천, 1월, 98쪽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에스라
태프트 벤슨, 2월, 2쪽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시 베리 워너와 수잔
워커, 8월, 26쪽
오마운 관찰에서 자녀를 키우는, 조 제이
크리스텐슨, 1월, 11쪽
해럴드 비 피리: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가시 괴물, 페트라야 벨리, 2월, 18쪽
영원한 진보
“나와 함께 행하라”, 엘레인 엘 천, 7월, 15쪽
어린이들의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전하신사람, 엘베르 투스 아데, 7월, 13쪽
영의 세계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라”,
애자요스 엘로, 4월, 2쪽
예수 그리스도(속죄, 부활 참조)
구세주께로부터 나오는 행, 지에드 엘
오카자카, 1월, 94쪽
나사렛 예수, 메이드비 비 하이트, 7월,
58쪽
회유가 이리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겠느냐?,
하워드 더블류 헌터, 7월, 64쪽
모든 어린이들이 그리스도께 대해
예언하였음, 다 벨리 옥튼과 알론
존슨, 4월, 10쪽
성의 고난을 헤치며, 토마스 에스 온손,
1월, 68쪽
신앙이 증가할 때, 페트라야 피 피니거.
7월, 94쪽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매사지, 로비트
디 해럴드, 7월, 78쪽
예수님을 받기 위해 노력함, 에드 면밀
하르드, 7월, 82쪽
우리의 주 구세주, 조셉 비 워스턴, 1월,
5쪽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고든 비
형물리, 7월, 72쪽
“우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업”, 페트라
에이치 옵스, 7월, 98쪽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의에게 감송하십시오,
하워드 더블류 헌터, 10월, 20쪽
주님이 우리에게 믿시길, 토마스
에스 온손, 7월, 91쪽
과정에 산발 얻은, 엘에 메스플, 12월, 10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시오,
고든 비 형물리, 7월, 53쪽
항상 성한 일을 행하는, 고든 비 형물리.
12월, 2쪽
예수
노래와 예수, 자넷 토마스, 5월, 12쪽
예언자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였음, 다 벨리 옥튼과 알론
존슨, 4월, 10쪽
애자요스 엘로, 4월, 2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모범으로 가르침
교사, 토마스 에스 온손, 6월, 2쪽
예언자를 중의 요셉 스미스, 로비트 엘
릴로, 6월, 26쪽
스펀서 다블류 케일: 그는 포기 하지
않았다, 페트리아 벨리, 3월, 26쪽
스펀서 다블류 케일, 벨리 맥스 아담스,
5월, 50쪽
해럴드 비 피리: 주님의 화살통에 담긴
가시 괴물, 페트라야 벨리, 2월
워드 및 이부
워드/이부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의 일부, 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1월, 79쪽
유독
누가 지배하는가?, 캐네스 존슨, 6월, 18쪽
우타 호텐(요셉 스미스 기념관 참조)
음악
개명을 지키라, 비비라 에이 벡노스키
9월, 어린이란 10쪽
나의 모든 아름다움, 니나, 니나 해밀, 6월,
60쪽
노래 가사, 피에트라 벨리, 4월, 23쪽
성전 측관, 페트라야 벨리, 그레이엄,
12월, 어린이란 4쪽
주 사람, 페트라야 벨리, 2월, 피에트라
블리, 3월, 54쪽
의료
행복의 추구, 다블류 유진 한센, 1월, 81쪽
이스라엘
출애굽: 하나님의 시험과 감명
본보기에 써 조명해 본 곡, 에스 캐슬
브라운, 8월, 34쪽
아이기
라마야, 이리 와, 비바 나된 보스키,
9월, 어린이란 1쪽
빛의 동안, 벨리리 가르시아, 2월,
어린이란 54쪽
권리, 몬타 페나, 6월, 61쪽
바라바라
"어둠 속을 걷으며, 부인 창고가", 마빈 케이가드너, 2월, 8쪽

파르, 사라 마릴라
사리 마릴라과 파르, 조이 씨촌 히든, 6월, 56쪽

파마바네, 데베카
이탈리아 시에나의 가브리아 파마바네, 디안위커, 5월, 62쪽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 반다 페레이라 드 안드리아, 12월, 26쪽

존슨그레프트, 루피라한
"제가 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태국의 루피라한 존슨그레프트, 6월, 10쪽

바비
라마야, 이리 왔!, 버나 타빈보스키, 9월, 어린이란 1쪽

영희의
영희의와 함께 혼자 왔, 엠 라셀 벨라드, 7월, 24쪽

행복(적게 나누는 시간 창조)
내 마음에 드리워진 철벽, 9월, 24쪽
행복에 이르는 길, 토마스 에스 온손, 7월, 60쪽
한국 중의 모든, 5월, 26쪽

유럽 가족
다 같이 하나되어, 리차드 앰튜너, 4월, 38쪽

피에타 펜스 디
펜스 디 피에타 장로, 실 존손 히머스, 2월, 52쪽

필라리온
나는 그가 예상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바 알람바우, 12월, 30쪽
알바 마테우스: 미천무처럼 하늘까지, 마티스 두아워, 8월, 10쪽

필립의 인생
삼반되는 것, 기립과 기쁜 좋은 생활, 브루스 시와 마리 해이먼, 3월, 14쪽

학부
"나의 어린 것들을 보라", 고든 비 합물리, 토마스 에스 온손, 엠 라셀 벨라드, 마천루 피 그레手续费, 10월, 35쪽

한국
독신 성인들의 영등보에 모임, 5월, 29쪽

함께 나누는 시간
"게임을 지키라", 주니어 에드워드, 4월, 56쪽
주니어의 계획은 저에게 화를 가져다 줍니다, 주니어 에드워드, 3월, 56쪽
나는 화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니어 에드워드, 10월, 어린이란 8쪽
"내가 익히지", 주니어 에드워드, 9월, 어린이란 8쪽

사랑하는 어버이, 감사합니다, 주니어 에드워드, 5월, 58쪽
신교는 평화를 공포, 주니어 에드워드, 11월, 어린이란 10쪽

상구 찾기, 주니어 에드워드, 8월, 어린이란 10쪽

함께하라, 고요하라, 주니어 에드워드, 6월, 54쪽

"주 예수를 덕분으로", 주니어 에드워드, 12월, 어린이란 7쪽

행복
행복은, 아파도, 아파도, 1월, 31쪽

정말하는 사랑, 주니어 에드워드, 7월, 39쪽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엠 라셀 벨라드, 1월, 56쪽
생계의 주도, 주니어 에드워드, 8월, 어린이란 1쪽

형물리, 고든 비
고든 비 형물리의 부재란, 엠 라셀 벨라드, 10월, 8쪽
저자 채인

가드너, 마틴 페어
어둠 속을 걷으며, 부른 찬송가 2월, 8쪽
요셉 스미스, 회복의 예언자, 6월, 36쪽
타갈의 신선과 간판, 9월, 34쪽
가르시아, 테오디레
몇 곡의 동경, 2월, 54쪽
고마리, 에드니 와이
김상환, 1월, 30쪽
곤잘레스, 엘마 아나라
먼지 끼 한 장의 사진, 11월, 8쪽
골드링, 레이
사랑 모자리의 위층은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여름이란 10쪽
그레슬리, 미에루 썬
"나의 어린 것들을 보라", 10월, 35쪽
그레이엄, 제단리안 켈시
성탄 축하, 12월, 어린이란 4쪽
그로버, 존 에이지
왜 날 깨우지 않았죠, 12월, 22쪽
주님의 사랑, 1월, 26쪽
나바레테, 호세 로페드로 알라르콘
사랑의 고리, 2월, 26쪽
뉴, 케이시
입맞: 이것을 그치는 방법, 1월, 28쪽
블린, 러먼 엘
법률 속의 문법, 1월, 33쪽
"우리에게 현명한 사랑과 가르치는 가르치는 손을소", 7월, 69쪽
누언, 콜 레드
손과 마음으로 봅, 4월, 44쪽
다이어, 윌리엄 자
시간을 빼앗은 후에 있었던 까닭, 9월, 20쪽
다이아, 줄리안
아비, 고양입니다, 10월, 44쪽
데일러, 케이 뉴험
주 사랑 느끼요, 3월, 54쪽
드 안드리아, 반다 션베이리아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12월, 26쪽
디디에르, 찰스
여러분의 성악을 기억하실시오, 7월, 42쪽
다이아, 야곱
봉사 및 행부, 1월, 31쪽
바로우, 브랜트 에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18쪽
바스케스, 가말리엘 알바레스
올림에서 주신 소책자, 8월, 22쪽
바반안, 테오도르스 지
보호의 손길, 9월, 30쪽
바케, 제인
내가 가르칠 차례야, 3월, 44쪽
벨라드, 엠 티콤
고른 미 생상의 부재관장, 10월, 8쪽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10월, 35쪽
다양성을 통한 평화, 1월, 89쪽
영혼의 맛, 9월, 49쪽
평의회와 함께 협의일, 7월, 24쪽
영의회의 일, 1월, 76쪽
뱅크스, 벨 바
지나갈 위한 시간을 가저십시오, 11월, 28쪽
만, 에드 엔지오
귀감이운은 음가, 7월, 66쪽
베이트먼, 벨린 제이
장벽의 흙을 걸게 하여, 7월, 65쪽
남긴손, 타일러
이전과 이후, 11월, 26쪽
이버슨, 스티븐
개의 성약, 10월, 어린이란 4쪽

스

복, 엘라인 엘
"나와 함께 살아가", 7월, 15쪽
"너와 함께 행을 망설이는 정신을 평판에 하여", 1월, 98쪽

책, 잠편 페이
아브라함의 성약, 말안을 위한 대벽, 2월, 42쪽

 чел, 월리 케이
선한 생활의 임, 7월, 47쪽

켈, 빌럼 에스
영화에 관한 생각을 위한 신학적 지침, 7월, 17쪽

조오지, 로이드 뮤
감사, 7월, 27쪽

존슨, 리사 에이
영원을 위한 도로 여행, 5월, 46쪽

존슨, 메리 헤이든
구약을 존중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2월, 41쪽

존슨, 알 링
모든 예언자들이 그레스도에 대해 에언하였음, 4월, 10쪽

마크로네시아에 새로운 철노를 만들, 12월, 40쪽

존슨, 케이스
누가 지배하는가?, 6월, 18쪽

우리에게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가 깊어, 7월, 29쪽

존스턴, 케일린
모든 일들이 세자가를 찾았다, 6월, 34쪽

스

초우프, 제임스 브라이드
초우프, 8월, 어린이란 6쪽

스를라운 곳, 9월, 어린이란 12쪽

솔스 이체, 콘버트
여러분의 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시킴, 7월, 13쪽

건 토마스, 니클
나는 그가 아프지만 세상을 만든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30쪽

개요, 시 양
"아이, 제 내달란德 사람들에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6월, 44쪽
페터, 보이드 케이
모든 장로들과 모든 자매들이 알아야 하는 것, 11월, 14쪽
이бар과 가족, 7월, 19쪽
개념과 양립을 위하여, 1월, 21쪽
매일 엽 토
"나는...메워요", 7월, 36쪽
"의리 있단다 우리생산부", 1월, 66쪽
페터 토나
보품, 6월, 61쪽
페린, 케리스
타이타리의 첫부, 6월, 14쪽
페어, 클랜 엘
자신의 건강, 3월, 62쪽
포울먼, 로<Func name="escapeHtml" args=""드르드
히년의 용사, 3월, 84쪽
포먼, 비버이
모던, 50족
프렌트 헤라스, 아르바
함께 처녀지는 인생, 10월, 46쪽
뢰나가 헤나스와 써
신앙이 증가함, 3월, 94쪽
파크, 유 디북
기름으로 가득 찬 영원한 운련을 위한 개인 점검표, 1월, 40쪽
퍼서, 우슬라
내 마음에 드리위짐 절제, 9월, 24쪽
퍼스, 비지니아 에이치
신앙이 내심됩니다, 7월, 92쪽
화드, 자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 1월, 79쪽
퍼타스, 에이치 브리크
"아이야; 은나씨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못하도록 하라", 1월, 42쪽
퍼타스, 캄
내 자신을 단련시키가라, 10월, 48쪽
페나로, 잔
"개미 사무부두 장로, 4월, 53쪽
비주얼 테마를 번성 대관장, 7월, 61쪽
부부, 오리오 이 다발라 엽코, 6월, 52쪽
하먼드, 에드 멜번
예수님을 끌어내려 노력함, 7월, 82쪽
헤일, 리처드 박사
권한한 건강, 5월, 54쪽
행복, 다름없는 유전
행복의 추구, 1월, 81쪽
현, 하워드 리틀먼
나의 가정에 빼앗아 버리다
해결, [7월, 64쪽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일정, 11월, 2쪽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10월, 2쪽
헤이트, 더비드 이
나사렛 옆, 7월, 75쪽
신교 사항 - 우리의 책임, 1월, 61쪽
헤이트, 로버트 시
상상되는 것, 가볍고 기본 좋은 생활,
3월, 14쪽
헤일즈, 존 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제시, 7월,
78쪽
자녀들은 우리를 이해해
기억하였습니까?, 1월, 8쪽
헤일즈, 제니스 시
영광으로 성장함, 7월, 96쪽
호프만, 제시 부
토마스 헤이즈 분평장, 10월, 16쪽
"하나님을 바라보아 실드두 하라", 1월,
13쪽
호프만, 토리
주 사탕 녹색, 3월, 54쪽
하미스, 칼 존슨
라스 더 헤어가 장로, 2월, 52쪽
하든, 존 장 존슨
사나 마리라 파르, 6월, 56쪽
헬, 비욘 델
45년 동안의 실효 주관, 12월, 8쪽
하런, 테디 이
기독선의 선교 사업, 2월, 12쪽
형종이, 보든 비
가장 가치 있는 것, 3월, 2쪽
교회 위안 지도, 1월, 4쪽
나의 건강, 1월, 51쪽
"나의 이런 것들을 보라", 10월, 35쪽
베르데가 밖에 나가서 싸여 풍겼습니다,
8월, 2쪽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7월,
72쪽
자녀들 빼고 티아로서 안에서 카우시시오.
1월, 54쪽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실니 다,
7월, 53쪽
장상 선한 일을 함, 12월, 2쪽
영적인 확신

첫 번째 시현을 본 지 삼 년 이 조금 지났 1823년 9 월 21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임장과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로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 사건에 대하여 "천에 얻은 것과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저지를 알 수 있다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 니다."라고(요셉 스미서 2:29)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 경험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밤에 몰려, 주님의 권고에 순종 하였고, 시험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임장을 확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 는 자마다... 후세에 주신다(야고보 서 1:5 참조)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개인적인 의료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명대로 살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료적 노력과 기술 이라는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습니 다. 스테이크 청소년들의 하이킹 활 동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번에 상례는 그 임무에 대해 견 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킹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고, 그 활 동을 위해 사전 토크를 전했을 때 묻 지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 다음, 하이킹을 시작했습니다. "그 하이킹은 전혀 허들지 않았어요. 제가 축복을 받았 다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

야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전 천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을 지킬 때에 그분께서는 즉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모사야서 2:24 참조) 우리가 그분의 친절하 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한 축복 을 받을 것이며 그분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또 다른 자매는 그녀의 친구들이 하는 한 점을 저를 도와서 성장한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도록 지명받았는데, 마지막 예배 순 사가 훈련 속에서 끝나다고 화평스 리운 영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 리는 아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주님 은 큰 것을 통해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지하셨어요. 과거에도 저는 비슷한 경우가 있었기에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저게 보았죠. 그리고 저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모임 중에 그분의 영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 어떤 경험이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에 강화되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강하게 하여 모든 도전을 극복해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부딪히는 역경에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압박을 이길 수 있 고 역경을 견디 수 있는 용기를 힘 이 우리에게 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스라는 랜드 셰인 대광장은 다 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으며,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성취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과 믿음의 느낌 및 평온한 영을 지니고 행할 수 있습니다.(예스라 헤드 포터 랜드 대광장의 가르침, 66쪽)"

유타주 프로보의 밥카 본함 드문 자매는 그녀의 남편이 앓아 죽어 가고, 그녀 자신의 건강도 매우 나빠 져 감에 따라 아주 어려운 역경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직 신하신 주님이 제가 수 개월 동안 치여있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낙대하게 나의 어려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 고, 현신하는 자세로 끝까지 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는 도움 없이는, 제가 남편의 오랫동안 병적에 있을 때 에 현신적인 간호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운 고난 에 직면하게 될 때에 신앙은 어떠 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지탱시켜 줄까요?
포르투갈에서의 크리스마스 밤

반더 퍼레이라 드 안드라데

우리는 그 해 크리스마스에 포르투갈에 있는 우리가 지향하는 다른 선교사들과 만나 선물을 교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밤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있던 포르투 와드에서 느껴진 크리스마스의 영기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빛나는 느낌이 들었다. 난 나는 내 동산과 마치 내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우리의 구도자들을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축사를 불러 주는 것을 했다. 그 곳에 도착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찬성하였고, 곧바로 우리는 우리와 우산, 경전과 찬송가를 집에 들었다.

우리가 방문한 첫번째 가족들은 시대 중심가 근처에 있는 폐허가 된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 살던 포르투갈 사람들들이었는데 그 곳에서의 내란으로 인해 포르투갈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의 복수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기진 것이 없었다.

수도원에 도착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친교를 시작해 많은 생각을 하며 열기가 시작했다. 그러자 나무 내부는 낮고 오래되어 낯지 않기 쉬운 소리를 내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그들의 모임을 참가하기에 적절해 기쁘게 해주신 우리의 계획이 실행되거나 않음이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의 끝 한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커다란 벽돌을 지붕을 타고 미리 위로 뛰어 넘어갔다.

우리가 노래를 시작하자 밖은 둔동자와 행복에 찬 열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둔 동자처럼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왔고 곧 이어 부모들도 나타났다. 얼마나 그들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방에서 나왔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그들은 노래의 가사를 다 알지 못했다. 주위에서 나는 비는 배경 음악처럼 노래의 반주가 되었고, 영의 속삭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형제요, 자매라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우
그 성탄절 밤 우리는 성스러운 노래를 함께 부르고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부자른 가난한 사람이라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간에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러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씩러내리기 시작했다.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찬송가를 불 수 없게 되자 우리는 노래를 멈추었다.

우리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 그들 을 만나 소책자를 건네 주었고, 구도자들께서는 토론을 계속하도록 격려하였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모두를 초대하였다.

우리는 다음으로 포르토 시의 중심에 있는 미국 영사의 집을 방문했다. 동반자와 나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들은 부자였고, 도심의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큰 집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가 그 집 문에 도착했을 때, 하인들은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했다. 우리는 대본 바로 앞에서 수도원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렀던 바로 그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그룹은 20명 이상의 선교사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브라질, 포르투갈, 양골라, 미국, 캐나다, 파라과이, 콜롬비아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첫 노래의 2절을 막 부르자마자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로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그 곳에 모여 있었 다. 우리는 곧 그들의 얼굴에서 페하가 된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독갈은 눈물과 웃음을 보였다.

우리가 노래를 마치자 영사의 부인은,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 또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영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완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안내되었고 각 선교사들은 자신의 호텔에 자리나라에서 온 외교관들에게 간증을 전했다. 그 수도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소책자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토론을 듣고 교회에 참석해 보라고 권했다.

그 성탄절 밤 우리는 성스러운 노래를 함께 부르고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간에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대가 없이 전달한 선물은 우리들 마음 속에 모든 선물 중 가장 가치있는 선물, 곧 주님의 영을 가져다 주었 다. □
나는 그가 예언자란 사실을

일파 알 칼루요

가 약 아홉 살령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있는 나의 가족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그들의 단정한 모습과 다정한 나이 젊고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한 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영어로 가르쳤는데, 학교 선생님이었던 어머니와 아버지만이 선교사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였다.

나는 어머니께서 몰몬경을 집어 던지고 더 이상 읽기를 거절하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어머니는 교회에 대해 어떤 거짓말을 들었고 아버지께서 선교사들에게 우리를 가르치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당시 화를 내셨다.

아버지께서는 흔히 책을 점어드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여보, 마음을 열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오. 이 책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요. 이 책을 읽어 보시오. 그러면 이 책이 찬란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근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6월 1일에 북쪽으로 어머니가 학교를 떠났을 때도 그녀의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나는 몰몬교에 대해하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으며 또 다른 칠성을 받을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출출을 거절할 수 없이 칠성에 담겼다.

그렇지만 요셉 스미스가 커다란 문제로 남게 되었다. 나는 그가 하나님이 예언자라는 전설을 믿지 않았지만, 교회 가르침 중 일부는 분명히 믿었으며 매일 첫째 일요일 모임만 제외하고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참 좋다고 했다. 나는 여러 번 교회의 사람들도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로 인해 나는 몸이 기분이 상했다. 나치는 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다. 교회에 가지 않으려는 구실도 내세웠지만,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일요일에 집에 남아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14살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체크하니 반에 등록시켰다. 그로 인해 나는 몸이 피로했다. 홍미가 없었으며 난 강제로 참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첫번째 모임에 나

일부러 놓개 도착했다. 그러나 놓개에도 교회에는 관리인이 선 탑리오 형제님 맞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이 바로 내 세미나리 교사였던 것이다.

다른 학생들이 도착하자, 세탑리오 형제님은 우리 중에 몰몬경을 읽어 본 사람이 있는가 물으셨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책을 펼고 우리에게 따라 읽으라고 하고 나파이일_ij서 1장 1절부터 시작하였 다. 나는 교사님이 그날 그진 이외에 무엇을 더 가르쳐 주기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것은 몰몬경에 대한 그의 강한 간증이었다. 나는 마음 속 깊이 감동받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행복감을 느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몰몬경을 읽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석식 후, 나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도 하고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자정까지 계속 읽었다. 나는 읽으면서 마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몰몬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마음속에 그려 보였다. 이번 들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몰몬경의 예언자들은 전설을 증거하기 위하여 찾아낸 고백돌의 내용들을 읽을 때에는 눈물이 흘리고 했다. 그런 동네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예언자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것을 했다고 하여 화를 내었다. 나는 자신이 예언자를 박해한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으며, 내 자신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되고는 사람으로 생각되었었지만, 나는 지금도 항상 그isspace 채워져 있다.

다음날도 빗을 쫓고 계속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셨다. 물론경을 다 읽을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아침에 책을 다 읽었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박었다. 기도를 통하여 물론경이 찬다는 것을 알게 됐을 간증으로 드렸다. 그리고 물론경이 참으로 진실된 것이라면 요셉 스미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물론경을 변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눈물을 나의 얼굴을 적시며 "아름다우"라고 했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가슴으로 가득 찼다.

그러한 경험이 후에 내가 캐나다의 세부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요셉 스미스와 물론경에 대한 구도자들의 견고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칼루요 가족이 참례 받는 날, 왼쪽, 알파와 그녀의 동생 알렉시스가 그들의 부모인 에델베리토와 엘리카 앞에서 서 있다. 존 테니스 코널레스 장로(왼쪽)와 프레드 덜 창로가 그들과 함께 있다. 몇 년 후 알파 자매(오른쪽에 서 있음)는 캐나다 세부 선교부에서 병사했다.
민들레에게서 
언은 응답

밀리 프리츠 레이에스

어느 날 나는 세 살과 네 살 난 두 딸을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갔다. 우리는 아름다운 집 갑 파티한 색의 꽃이 피어 있는 정원을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봐야생화들로 둘러싸인 키가 큰 나무들로 보았다. 그 나무들 역시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아이들은 작고 밝은 해처럼 피어나는 민들레를 보았다. 그들은 각자 하나씩 줄었다. 그러나 설명받아도 그 노란 꽃들은 오랜 화楽しめる 시들이 벌였다.

“왜 그 꽃들은 줄었어?” 나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줄 때라고 생각하며 물었다.

“왜냐하면 그 꽃들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이죠!” 둘 다 소리쳤다.

“그 꽃들이 지금도 예쁘니?”

“아니요.” 큰 딸은 대답했다. “바에 버리세요!”

나는 산아 있는 식물이 뿌리에 뿌리면 억제되지 못하게 자라나며 자연을 흩어져 훼손시키지 않고 감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딸들은 이해했다.

아이들은 다시 나가 놀기 시작했고 나는 여전히 그 작은 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시련을 견디며 멀리한 간장을 갖는 데 필요한 양을 받지 못한 비활동 회원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우리의 간장이 신앙에 뿌리를 박고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얼마나 쉽게 시들어 죽게 되는가에 한해 생각했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비유가 나를 괴롭히던 한 문제에 대한 응답을 인식하였을 때 감자가 가슴이 멀랐다.

남편은 언제나 가 교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으며 나는 충들음을 피하기 위해 비활동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나는 단지 잠시 동안만일 것이라며 합리화했다. 나는 올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오고 있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의 산책과 민들레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만악 내 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 주님 이유로 회화에서 받은 편관과 들통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일요일마다 내가 주님의 정원에서 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주는 사랑과 주님의 영으로 먹어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가 정진을 위함으로써 먹던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나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평화의 정표를 키스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두 송이의 민들레를 둘러싸여 주어진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
몰 른 경 아
나 타 나 있 는
크 리 스 마 스

가복음의 구절들은 마치 옛 친구의 목소리처럼 위안을 주며 친근함 있게 읽어줍니다.

만나늘고 떨어진 사람들 [자가 양떼들] 자기가

목자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로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서 종종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귀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파이의 말씀은 어떻게나가? 그는 구세주가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이미 시현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레이렌인 예언자 사뮈엘의

용감한 예언은 어떤가요? 그는 시착한 자들의 화살에 맞서서 장차

다갈 빛에 관하여 예언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 말씀에 치한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은 위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나파이서 1:13)

몰론경에는 위안과 확신을 주는 말씀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찬양의 음식처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친숙해지도록

합시다. 경전을 펼치고 여러분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몰론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뮈엘(위)과 나파이인 예언자들은 구세주의 탄생(왼쪽)과 주께서 베푸시

성서에 관련 상세히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상에 보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독생자이신을 간접적으로 증거웠다.
이더서 3:9, 14, 16

이에 주님께서 저(아랫의 동생)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하여 청자 내가 살과 피를 갖게 될 것을 내가 보았나니, ……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에비된 저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채라. 내가 내의 영채의 향상 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내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 같 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 내어 보이리라.

니파이서 10:4

나의 부친이 예수살렘을 떠나고 난 육백년 후에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때시아 곧 세상의 구세 주가 되시는 예언자를 세우리라 하시였으며,

히라도서 14:3~5

보라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의 표적이 너희에게 주리라. 보라 그가 오실 때에 하늘에 큰 빛이 있어 저 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둡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마치 낮과 같은 것이요, 한 낮과 밤과 그 다음 낮이 모두 한 낮 같아 밤이 없으리 니, …… 주가 나시가 전날 밤이 그 려하리라.

또한 보라, 너희가 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 별이 둥그리니,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요,

니파이서 11:14~15, 18~20

또 내가 보니, 하늘의 열리고 한 천사가 내 앞에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를, 나파이리 내게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저에게 말하기를, 모든 처리남 가운데 누구보다도 위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처녀 한 사람을 보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내 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보는 처녀는 육체를 입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의 아버님이시나리.

나는 그 처녀가 영에 인도되어 감을 보였으니, 그 처녀가 영에 인도 되어 가고 나서 천사가 내게 보라 하시기로, 눈을 들이 그 처녀를 볼 에 어린 아이를 꾸며 앉고 있다라.

모사이야서 3:8

저는 하나님의 아들, 태초로부터 만물의 저은 창조주, 하늘과 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일결음으로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이르리라.

엡마서 7:11~13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나,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 통을 대신하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위의 오른쪽 그림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생명과 사랑을 약속해 주셨다.
구세주의 속죄로서 이루어진 그 약속은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확산되고 있다.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얻어 죽음을 사슬을 죽음으로 당한 후에, 육신을 잃은 인간의 연약함 위에서 갑자기 가득 차게 하셨으니, 육신을 잃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옹신을 가지고 구해야 내는 길을 아시려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옥계를 잃고 고난을 받으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구속의 헌으로 그들의 범법을 구제하시려 하신다.

니파이삼서 25:26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지들이 자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니파이삼서 1:13
머리를 불고 기뻐하라. 보라 내가 깨어나온다. 오늘 밤으로 정적들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라.

니파이삼서 9:22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룰길래, 내가 저를 받아들이지니, 이같은 자라야 하느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을 보라. 도리어 이린 자를 위하여 내가 나의 생명을 바쳤고 다시 취하였노라. 그리므로 링 끝에도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으리라. □
미크로네시아에 새로운 항로를 만드
알 박 존슨

그는 카누 바다에 누워서
파도의 미묘한 움직임을
느끼고 있다. 밀려오는
파도의 물결들은 저마다 지금 막
느린 섬에서 밀려 나오는지 또 어떤
파도와 마주치는지를 알려 준다. 훌
련과 경험을 통해 그는 그 파도들
을 알며 그 것으로 배가 어디쯤 있
는지를 인식한다. 그리고 어딘지로 알면
잡이 있는 곳도 알아낸다.
오늘날에는 바다를 이용해서 항
해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 섬사
람들이 많지 않다. 미크로네시아는
나무나 오해도안 그 섬길을 부딪
친 어린 해류보다 더 강하고 혼
란스러운 문화적 흐름의 변화를
겪었다.

나의 주 하나님아......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저들을 기억하라
(히브리어 29:7)

미크로네시아는 11,649,000 평방
킬로미터(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은 크기)가 넘는 바다 위에 있는
대평양 중부의 군도이지만 그 바다
있는 모든 섬 중 3,227 평방킬로
미터( 록строен 조도의 크기)에
로 인정받지 못한 곳, 북 마리아나
연방, 나우루 공화국, 카리바시 공화
국(이전에는 갈바리 군도로 알려졌
음). 완초 섬인 웨이크와 존스턴 섬
처럼 어린 섬들은 미국령이다.

천 년 동안 미크로네시아인들의
생활은 거의 폭발했다. 기온도 빨로
변화가 없고 산호초로 들려세인 알
은 바다 속에는 섬에서 제배하는 과
일과 야채 및 근처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물고기도 풍부하다. 가물
을 씹은 군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의 섬에는 연중 내내 신록 상태를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비가 내렸다.
질병과 그로 인한 죽음 및 바다의
위험은 그야 드문 일이 아니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유대는 상부 상조
의 전통과 더불어 아주 강하다. 어
인들은 그 딸에 대한 소유권을 가
지며 천장은 남자를 가운데서 설립
된다. 목공, 아로, 농사, 의약에 관한
기술이 가치 있게 여겨지며 이웃한
인들과 기술 교환도 한다. 각 사람
은 저마다 가족과 가까운 소소되어
있으며,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
다.

오늘날 변화의 물결은 거대한 파
도처럼 미크로네시아 전역을 휩쓸고

여제의 일기와 유일한 먹은 아니다 (취크 속담)

마그리나 삼 아이들이 엔다우먼트 를 받기 위해 필리핀의 마닐라 성전 에 갔던 이야기는 미크로네시아인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종종 지리적으 로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멀고 어리까지 가치를 잘 설명해 준다. 그녀는 취크 (또는 트루크)에서 살 때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요셉 스미스에 관해 질문을 했었는데, 결국 그들의 답편에 마음이 감동되어 그녀는 복음 토론 을 요청했다.

요일에 그들은 가정의 밤을 가졌다. 마그난은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계셨어요. 우리 밤이 편히 기도를 듣고 있었을 때, 후 아이들은 할머니를 끼어 안고 잠舣ياً을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건 아이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방법 같구나. 예들 온데가 어릴 때에는 분명히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후 오래되지 않아서 마그난이 1,300킬로미터 정도 멀어진 사이판으로 이사했다. 사이판은 민족과 문화의 도가니 같은 곳이었다. 마그
아나 군도 북부에 위치한 그 큰 섬은(가로 23킬로미터, 세로 8킬로미터) 태평양 전역에서 언, 사람들은 미국, 유럽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언 사람들을 고양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 곳을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들었고 필리핀 사람과 한국인들은 그 곳의 과 물자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왔다. 미크로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언, 사람들은 그 곳이 전통적인 미크로네시아 생활과 현대적인 서구 생활의 중간쯤 되는 생활 방식을 가진 특례적인 정도임을 알게 된다.

마그난은 사이판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미국 본토인 전과 줄리 엘리스를 만났다. 집은 그녀의 가정 복을 교사였고 줄리의 그녀의 방문 교사였다. 1992년에 집은 마그리나 에게 성인에 가도록 격려해 주었다. 그녀는 가고 싶었지만 이미 그때엔 남편과 사별하고 제혼한 뒤였다. 비회원인 남편은 그녀가 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결국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별거하게 되었 다.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로 가기 전 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으로 들어와 제 얼굴을 보고는 제 마음이 바쳐지 않았음을 알 았어요. 저는 그를 사랑했지만 또한 아이들도 사랑했고, 그래서 아이들 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어도요. 그는 그녀의 여행을 허락해 주 었으며 집에서 손과 맞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서 저는 그녀는 성인으로 갔어요. 엘리스 자매님이 동행해 주었어요. 저는 휨으로 인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녀는 그 곳에서 전 남편을 위해 성인 사 업을 했어요.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잔뜩 보 다 더 가져왔다고 칭찬한다. "능력과 존중을 웃는 고요한 힘을 잃으며....... "그 자식들은 일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친구하기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언 31:25, 28, 30) 
미크로네시아에는 이러한 칭찬에 이어오는데 여성들이 많이 있다. 

두경을 열어 보기 전까지는 코코넛 속에 유익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 

(벨라루 속담)

벤 로베르토는 지금부터 50년도 더 이전에 벨라루(일명 팔라우) 가까이에 있는 묵 3킬로미터, 길이 4킬로미터 정도의 작은 섬인 암가우르에서 태어났다. 벨은 "제가 어릴 때는 암가우르가 넓게 여겨졌지만 집착을 보고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 곳이 얼마나 좁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라고 말한다. 광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세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바라며 그는 비록 육군에 입대했다. 
그러서 저는 여러 종류의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가 어떤 곳이든 일이 생겨서 저는 벨라 우로 돌아가야 할 차지가 되었다. 그는 이 곳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했던 당시 에 저는 밀워키에 있었다. 벨라우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에 대해 한 벨의 탐구는 계속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1980년의 어느 날 발일성도 선교사들이 그에게 접근해 왔다. 벨라우에서 발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낮은 것이었으며 그 도 처음에는 선교사들의 말을 털리 나reamble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지 않았다. 그러나 물론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간행물을 얻은 뒤 그는 자신이 전들었다는 영적 인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는 그의 여행이 끝난 것이다. 
벨은 절망했으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주님께로 돌아갔다. 그는 자 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당시 41세) 선교사로 봉사하고 살아왔다. 기도 를 통해 마침내 선교부교는 그를 지방무의 선교부로 부를 때까지 그것 은 불가능해 보였다. 로베르토 장로 는 벨라우에서 16개월간 봉사했다. 그는 허무한 지 얼마 안되어 결혼했으며 그 후 바리티의 마닐라 성전에 서 인봉받았다. 
그는 교회에서 일관성 있게 축복 

성도의 막 1994년 12월호
이에. 여기 온 선교사들은 모두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벨라우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있다. 벨은 선교사로 봉사할 때 레부르트 케소리라는 이름의 젊은 벨로아인을 가르쳤다. 케소리는 형제는 벨로모로 장로의 모범을 따라 최근에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선교부 장로에 임기를 맡었다. 지금은 또 다른 젊은이들이 케소리 장로의 뒤를 이어 선교사로 나가고 있다. 이들 벨라우 출신 선교사들의 수행은 놀라우게 변화했다.

벤은 "주님은 이 젊은이들을 선교부에 데리고 왜서 다녀가 주셨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사람은 자신도 선교사가 되고 싶어해요."라고 말한다.

벤 로페르토 자신도 빛을 비추는 사람 중 하나이다. 코코넛을 조개 얻을 맛본 후 그는 리하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음의 열매를 나누는 데서 기쁨을 발견한다. (나파이 일서 8:11~12 참조)

가족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폰페이 승탑)

급년에 18세인 릭키 조행은 폰페이(일명 포나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폰페이는 열대 지역에 있는 산이 많은 섬으로서 폭이 19킬로미터, 길이가 23킬로미터 정도이다. 그는 말일성도 2세대로서 가족이 교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물론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라고 폰페이 주민인 18세의 릭키 조엘은 말한다.

희회원이 되기 위해 4년 동안 신앙심을 쿠데타에 대한 설례를 보여 준다.


그때 이후로도 밝혀는 별로 줄어 들지 않았다. 게다가도 계속 나돌았다. 교회 선교사들이 찾아왔다. 비디오를 이따귀로 보여 주었다. 그러니 술(술과 또 사카와르라고 불리는, 사지가 마비되는 그 지역 특유의 음료가 대중화되어 있다.)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릭키는 저체의 말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도전임을 깨달았다. 그는 “술을 마시면 친구가 많아요. 만 마시면 여자라는 소리를 들죠.”라고 말한다.

렇게는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에 대한 갑음을 얻었다. 그도 아버지처럼 장로들과 계속 우정을 지켜가며 지내는 삶의 동안 그들 도 도우준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물론 신앙이 참된다고 생각해 내었고, “교회와 관련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이에요. 저는 제가 신앙심이 교회에 오류를 느끼네.”라고 그는 말한다.

많은 폰페이인들이 릭키와 다른 활동적인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그들 특유의 청소년들과 얼마나 다른가 보고 교회에 대한 독창이 부르게 된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알코올 중독이나 영기능적인 기족 활동가들 새롭게 휴리 들어오는 악습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동안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그러한 문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폰페이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다른 성도들에 있는 말일성도 청소년들처럼 그들도 역시 새로운 물결을 탐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배반에 대해 자신을 잃추기보다 아니며, 곤란한 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성공한다. 그들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사람은 그들의 그분에게 붙어 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 준다.

릭키는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물론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라고 말한다.

친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마사 속담)

마주로의 조르메도와 비네타 모래양에게 선교사들이 처음 접근했을 때, 조르메도는 바라보고 말했다. 지금은 그가 전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을음을 걱정한다. 마주로에는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 곳은 마살 군도의 수도지이지만 대부분의 산악부인이 처럼 독특한 작은 세계이다. 제2차 대전 중에 완질 안에 여러 섬들을 연결해 주는 튀김이 건설된 덕분에 마주로와 깊이는 56킬로미터가 넘게 되었다. 그러나 폭은 여전히 수백 미터에 불과하다. 마주로는 하나의 도로가 서쪽 끝과 동쪽을 연결해 준다. 섬 주민들의 가장 큰 수입원

마주로에 사는 베나타와 조르메도 모래양은 가족들이 교회에 가입한 후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모래양 형제는 “이전에는 가족들의 필요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우고는 바뀌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한다.
온 정부에서 주는 글로이며 오락은 주로 자바로 이루어진다.

마침 군도의 사람들들은 종교적이며
손님을 경질하게 맞이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르메트는
자신이 불편한 것을 부끄러워하
였으며 마침내 신교사들의 방문을
허락하였다. 처음으로 장로들이 집
에 왔을 때, 비비터는 나가버렸다.
그러나 남편의 생활이 크게 바뀐 것
을 보고 그녀도 토론에 참여하게 되
았다. 적 태 편 1985년 7월에 조
르메트와 비비터는 친언례 받았다.

조르메트는 현재 자신의 생활이
이주 품활하게 변화되었다고 말한
다. “이전에는 가족들의 필요 사양
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
로지 습과 탕생하던 흉미를 가졌어요.
그러나 남편이 아버지에게 우리의
돌보는 것을 배우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전과 교회 재두들을
 haci 야기 시작했어요.”

비비터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가입하면 사람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가정 생활도 나아지요. 서로 더 많
이 존중해 주게 됩니다. 무엇을 변하
게 되고, 그들은 주변 환경을 변화시
키기 시작해야.”

모태양 가족에게 쉽게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힘든 질문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번도 왔지 않거나 설명하
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어요. 그
들은 저와 형제처럼 항상 함께 있어
주었어요. 제가 그들을 믿리라고 애를 쏘면서 쓰러운 그들은 더욱 자리를
바꾸어 주었어요.” 조르메트의 말이
다. 그들의 친절함과 관심 때문에 그
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들었으
며 마침내 사헌한 바닷바람처럼 영
이 그의 온 영혼을 휘두르쳤다. 그
때 그는 복음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
들였다.

그리고 마주로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23,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마주로 주민 중 약 10퍼센
트가 교회에 가입했다. 그들은 계속
활성적인 회원으로 남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혼란이
있고 신권 지도자도 부족하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주로에는
고 모태양이 제시해 온 새로운 성서의
크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모태양 형제
는 교회가 그렇게 패턴을 정상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
른 교회들이에서는 참된 복음을 가르
치고 있지 않거든요. 그들은 "사람들
은 순수한 복음을 접했을 때 그를
알 수 있어요.”라고 역설한다. 조르
메트는 직접 교회의 성장을 보아 왔
다. 그는 참eğin한 복음을 지지하고 있
어서 마주로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지하
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서
그가 해임될 때는 100명 이상이
참석하게 되었다. 현재 모태양 형제
는 지방정부에서 보좌로 복무하고
있으며 루 아일랜드 지부의 주일학
교 회장으로도 복무한다. 또한 세
미나리 교사이며 집회소의 관리인으
로서도 일한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
다.

주께서 바다를 우리의 통로 삼게
하시어(니파이아서 10:20)
애굽으로의 피신, 그림: 칼 헤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프리드리히 베토벤의 허락을 받아 개제됨)
다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믿고 의롭게, 단호하게 우리의 길을 나이가 [그분께] 갑시다... 만일 우리가 지금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께서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스럽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참된 신자", 닐 에이 맹스웰 장로, 14쪽 참조